

전시행사·포럼 등 마이스 현장을 누비다

프로그램 수료 후 마이스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인력들이 늘고 있다. 2017년에 1기를 선발한 이후 어느덧 5기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명의 마이스 전문인력이 배출되었다. 특히 고양특례시 마이스의 중심으로 통하는 킨텍스에 마련된 고양시 마이스 안내데스크(이하 안내데스크)에는 수료생들이 번갈아가며 근무 중이다. 해당 안내데스크는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에게 고양시의 다양한 관광지과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는 곳이다. 이곳에 배치된 전문인력들은 홍보활동 외에도 고양시 내 택시·숙박·식당·관광지 등 예약 서비스와 식사 제공 및 스마트폰 무료 충전 서비스 등 마이스 방문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2기 수료생이자 만 3년째 고양시 마이스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인 안진영 씨(48, 주엽동)는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다가 경력단절이 되었다”며,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시 일을 하게 됐다”고 전한다. 안 씨는 마이스 전문인력으로서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마이스 서포터즈' 부문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기도 했다.



66

중장년은 순발력이 좋고 마음가짐이 여유로워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에게 공감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령과 외국어 능력 등에 위축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진영 (주엽동)

99

마이스 현장 답사하며 견문을 넓히다

지난 9월 6일에는 5기 교육생들의 현장 답사가 진행되었다. 고양시 내 마이스 현장을 둘러본 5기생들의 마지막 답사 코스는 킨텍스였다. 1전시장과 2전시장에 다양한 규모의 홀을 보유한 킨텍스는 국내 최대 면적을 갖춘 고양시 대표 마이스 시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전시행사가 줄어든 시기에도 드라마 촬영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었다. 5기 교육생들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눈에 담고,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했다.

2전시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박선미 씨(48, 주엽동)는 17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다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 그런 박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주변 학부모 중에도 학력이나 경력에 손색이 없는데 경력단절이 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삼으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정년퇴직한 60대 이상 시니어 교육생도 적지 않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열어가기 기대해본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요



고양시 중장년 마이스 전문인력 신청하기

- 모집대상 고양시 및 인근에 거주하며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
- 모집인원 매년 15~20명
- 참여혜택 마이스 전문교육 및 특강, 마이스 산업 취업 컨설팅, 탐방 프로그램, 행사 운영요원 활동 기회 등
- 운영기간 연중
- 신청방법 고양컨벤션뷰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